

1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 동향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9.15)

< 국외 경제동향 >

- (미국) 7월 경제지표 양호, 연준 내 조기 금리 인상 논란 가중
 -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소비 확대와 재고 개선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전기비 4%대를 기록하고, 7월 경제지표들이 비교적 견조한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 내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
 - 7월 산업생산은 IT생산의 확대 영향 등에 힘입어 전달과 동일한 0.4%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소매판매는 자동차(-0.2%)와 백화점(-0.5%) 판매의 감소 여파로 전달 수준에 그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 지속
 - ISM 제조업지수는 7월에 57.1로 상승하면서 올해 연중 및 지난해 11월 (57.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2007년 10월(95.2) 이후 최고치인 90.9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경기 평가 및 전망에 긍정적
 - 실업률은 7월 6.2%로 반등한 모습이나, 비농업 및 제조업 일자리 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역시 아직까지 상승세 유지

· 최근 미 연준의 FOMC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조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옐런 의장 등 고위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

- (일본) 6월 내수지표 부진, 2분기 실질 GDP 전기비 1.7% 감소
 - 6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정체 등 내수지표들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2분기 전체 실적에서 보더라도 생산과 수출,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시현. 지난 2분기 실질GDP 성장률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대폭 감소 여파로 2011년 1분기(-1.8%) 이후 최저치로 급락
- (중국) 7월 내수지표 소폭 둔화, 수출 10%대 증가율 다시 회복
 - 지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들의 증가세가 일제히 전달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이 연초 이후 10%대 증가율을 다시 회복하면서 해외 수요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부진의 지속 시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
- (유로권) 6월 실물지표 부진 완화, 2분기 경제성장률 제로
 - 6월중 생산 감소세의 둔화와 소비 증가세의 지속 등 실물지표들의 흐름이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2분기 전체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 2분기 실질GDP는 역대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부진 여파로 정체

- (국제금융·유가) 엔화·유로화 약세 & 유가 100달러선 하회
 - 유로권의 디플레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일본은행(BOJ)의 추가 부양 가능성,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등을 배경으로 엔화 및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동반 하락
 - 일본과 유로권의 2분기 성장률 부진과 우크라이나의 정부-반군 휴전 합의, 미 달러화의 강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 WTI유와 두바이유는 201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동반 하회

< 국내 경제동향 >

- **실물경제**
 - 실물경기 : 전산업 생산지수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소비자물가 : 8월중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실업률 : 7월 계절조정 실업률 3.4%
-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 7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 금리 및 환율 : 9월초(8.29~9.5) 금리 보합 및 원/달러 환율 상승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 생산 : 전년동월비 3.5%, 전월대비 1.2% 각각 증가
 - 7월 서비스업 생산 : 전년동월비 2.7% 증가, 전월대비 0.4% 감소

- **고용**
 - 7월 취업자 수 : 전년동월대비 50.5만명 (2.0%) 증가
- **수출입**
 - 8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0.1% 감소한 463억 달러, 수입은 3.1% 증가한 42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은 EU·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이 하계휴가 시기 변동 및 파업 등으로 대폭 감소(-16.5억 달러)
 - 수입은 원유수입 증가로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재도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자본재 수입은 감소
 - ※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KIET 경제산업 동향』 (9.15) 자료 인용

□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14.9)**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활동이 4~5월의 부진에서 회복되고 있으나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
 - 7월중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 (전년동월비 39.8→50.5만명)
 - 8월중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전년동월비 1.6 → 1.4%)

- 7월중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하계휴가의 8월 집중 등 영향으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전기비 2.6→1.1%)
- 7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1.7→△0.4%), 소매판매는 준내구재·비내구재 중심으로 소폭 증가(0.1→0.3%)
- 7월중 설비투자는 항공기 도입 등으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1.2→3.5%)하였으나, 건설투자는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감소(2.8→△1.4%)
- 7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소폭 상승(0.1p)
- 8월중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0일),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영향으로 감소 전환(전년동월비 5.4→△0.1%)
- 8월중 국내금융시장은 코스피지수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금리는 소폭 하락. 환율은 원/달러 및 원/엔 모두 전월대비 하락
- 8월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전월비 0.0→0.1%)과 전세가격(0.1→0.2%) 모두 상승
- 기업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하여 내수 경제 어려움이 지속

- 아울러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므로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
 -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와 경제혁신에 정책역량 집중
-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14.9) 보도자료인용

www.nhchem.co.kr

남해화학 비료 국내최초
오뚜기 1등급 원료

농업인의 그늘 아래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한국인의 자라-
그 뒤에는 고향을 지키며 일해 온 농업인이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그런 고마움을 위해 더욱 나은 제품개발로 보답하겠습니다.
농촌사랑 농업인 사랑 - 남해화학

고객상담전화
080-220-1212
080-210-1717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남해화학주식회사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7.24)

○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기조

- 상황 : 구조적·복합적 문제, 시간은 촉박→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 정책기조의 대전환

· 과감한 정책대응

- *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확장적 운용
- *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 해결

· 직접적 방안강구

- *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가시적인 성과도출

- *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구체적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부문 확산 유도

○ 정책 방향

- 내수활성화(「41조원 + α」정책패키지 추진)

· 확장적 거시정책

- *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

· 가계소득↔기업소득순환을 통한 소비·투자여건 개선

-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의 전통적 방식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 추진

· 주택시장 정상화

- * 「수요기반 확충 -공급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 리스크관리 강화

- *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

- 민생안정

· 비정규직 처우개선

- *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 *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청년·여성 중심으로 고용률 70% 본격 추진

·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 「노사정 대화 복원」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소상공인 지원

- * 내실있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서민생활 안정

- * 서민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취약계층 지원 강화

- 경제혁신

· 공공부문 개혁

- *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

· 규제 개혁

-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성과를 가시화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 가시화
 - **창조경제 구현**
 - *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
 - **경제 민주화 추진**
 - * 경제민주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 **해외진출 활성화**
 - * 新시장 개척 지원과 통상협력 강화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 * 농업을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탈바꿈
- ※ 기획재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7.24) 보도자료 인용

□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 편성(9.18)

<2015년 예산안 기본방향>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운용**
 -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운용

-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41조원 거시정책 패키지 등) 등의 확장적 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이를 통해 「경기부진 → 세입감소 → 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
-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
 -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창조경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
 - (안전 만들기)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투자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 (희망 나누기)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기초연금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급여 정착,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도모
- 「지표경기 → 체감경기」, 「양적성장 →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향
-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유사·중복, 부정수급 등 재정낭비 사례를 근절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민눈높이’ 예산 지향

<재정 총량>

○ (총수입) 382.7조원, 전년대비 +13.4조원 (+3.6%) 증가

-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2.3% 증가(216.5 → 221.5조원, +5조원)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재정의 자금 세입 조치(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등으로 5.5% 증가(152.8 → 161.2조원, +8.4조원)

○ (총지출) 376.0조원, 전년대비 +20.2조원 (+5.7%) 증가

-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

<투자 중점>

○ 경제살리기

-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촉진 등 경기회복 견인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 안전만들기

-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확충

-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을거리 안전) 근절노력 지속
- 선진병영문화 정착 및 적극 방위능력 확보

○ 희망나누기

- 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완성
- 긴급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기획재정부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 편성』 (9.18) 보도자료인용

우리농업 60년 동반자 동부팜한농! 풍요로운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부팜한농 청단비료 시리즈

기능성 무기질비료

- 비린비료, 파란비료 성장엔(N)
- 15kg으로 20kg효과 녹색시대 25



최첨단 완효성비료

- 비료 위험 평생 도시락 톨스타파출상
- NK요령으로 깊이진 비료 톨스타플러스



국제규격 관주용비료

- 최고순도 완전용해 S-Feed
- 누구나 어디서나 Eco-sol



동부팜한농 자재품 : 파워건 / 요소 / 열회칼름 / 파워플러스 / 파워롱스타 / 반포로OK / 엔케이24 / 칼슘요소 / 뿌리조은

www.dongbularmhanong.co.kr · 고객센터전화 : 1644-0901



□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 농업체질강화(2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26,546억원), 식품업(8,369억원), 농촌복지(4,560억원) 등 농식품분야 투자-(9.18)

<주요 내용>

- (총 규모)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4조 940억원
- (중점 편성분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 구축,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체질개선, 농업분야 안전재해 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 '15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4,569억원 증액된 14조 940억원으로 편성
 - 이는 '14년 예산대비 3.4% 증가한 수준으로 '14년 예산증가율 0.8%에 비해 2.6%p 증가된 규모
 -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7,992억원, 식품업 분야에 8,369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 15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확장적 재정편성으로 금년대비 20.2조원 증액된 376.0조원으로 편성
 - 정부의 확장재정편성 기초하에서도 농식품부의 예산 증가율(3.4%)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5.7%)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임

· 다만,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 예산 평균증가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년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큰 증가 폭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농촌복지 등 필요한 재원을 내실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음

○ '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7,240억원→7,696, 증 6.3%)
-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3조 4,631억원→3조 5,649, 증 2.9%)
-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2조 1,406억원→2조 3,901, 증 11.7%)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3조 7,85억원→3조 9,406, 증4.3%)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4,277억원→4,560, 증 6.6%)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7,723억원→8,369, 증 8.4%)
-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1조 5,840억원→1조 6,197, 증 2.6%)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1조 5,325억원→1조 5,042, △1.8%)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9개 사업 - 458억원, 내역사업 - 602억원)

○ 재정사업 내실화 및 향후 계획

- 농식품부의 '15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40억원 편성-농업체질강화(29,618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26,546억원), 식품업(8,369억원), 농촌복지(4,560억원) 등 농식품분야 투자-』 (9.18)보도 자료 인용

□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9.18)

○ (WTO 통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추진
-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
-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

- (소득안정 강화)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등 영세·고령농 안전망 확대
- (규모화·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 통합

- (소비·수출 촉진)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

- ('15년 예산)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

·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소재·신기술 개발 등 R&D (41억원 증)에 대한 투자 확대 포함시 총 2,128억원 증액

○ (향후 일정)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 후 10월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할 계획이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부터 관세화 시행

- 쌀 산업 대책은 쌀 산업발전협의회와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9.18)보도 자료 인용

□ **국제곡물관측 9월호(8.29)**

< 국제곡물가격 수급개선으로 하락 전망 >

○ **밀 수급 전망 : 유럽산 밀 품질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세계 재고량 전망으로 가격 보합세**

- 8월 밀 선물가격(CBOT)은 전월 대비 1.3% 상승, 수출가격(FOB)은 1.0% 하락
· 흑해지역 정치적 분쟁에 따른 잠재적 밀

생산 및 수출방해 우려, 지속된 강우로 인한 유럽연합 밀 품질 악화 우려 및 이로 인한 미국산 밀 수요 증진 기대로 상승 가격은 상승

· 그러나 중순 이후 USDA 수급보고서의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과 수출경쟁 심화로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2014/15년 세계 밀 수급 전망치, 전월과 비슷

○ **옥수수 수급 전망 : 양호한 생육상황과 우호적 수급 전망으로 옥수수 선물가격 6.2% 하락**

- 8월 옥수수 선물가격(CBOT)은 미국 옥수수의 양호한 생육상황 지속, 우호적 수급 전망 등으로 전월(7월)보다 하락

- 생산량 전망치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으며, 소비량 증가(0.2%), 이월재고량 감소(1.2%)가 예상됨에 따라 기말재고량은 전월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콩 수급 전망 : 우호적 미국 콩 생산량 전망으로 선물가격 전월 대비 하락**

- 8월 콩 선물(CBOT) 및 수출가격(FOB)은 미국 콩 재배지역 기상 호조로 전월 대비 각각 5.3%, 1.0% 하락했음

- 2014/15년 콩 수급 전망치 전월 대비 개선

· 2014/15년 콩 수급 전망치는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콩 생산량은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말재고율은 이월재고 증가로 전월보다 0.7%p 상승한 28.0%로 전망됨

○ 쌀 수급 전망 : 중립종 쌀 가격 전월과 비슷, 장립종은 전월 대비 상승

- 8월 미국 중립종 쌀(캘리포니아 4% 쇠미) 수출가격은 0.6% 하락한 1,028달러/톤으로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태국 쌀 수출가격은 6월부터 이어진 쌀 재고 조사에 따른 장립종 쌀 공급부족으로 전월 대비 7.7% 상승한 444달러/톤으로 나타남
- 2014/15년 국제 쌀 수급상황은 인도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월보다 소폭 악화되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 9월호』 (8.29) 자료 인용

2 국내외 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

□ 품목별 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 2014/15년도 세계 곡물수급은 전년 대비 생산량(0.1%↓)은 감소, 기말재고량 (3.8%↑) 증가 전망(기말재고율 0.6%p↑)
- 지정학적 리스크, 엘니뇨, 금융리스크 가능성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급이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된 상태. 향후 생산지역의 기상여건에 따라 등락을 보일 전망이며 장기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 세계 주요곡물 생산량

(단위 : 백만톤)

구 분	'13/'14 (A)	'14/15(전망) 8월(B)	전년(B/A) 대비(%)
곡물전체	2,464.2	2,461.2	△0.1
- 쌀	475.8	477.3	0.3
- 밀	714.1	716.1	0.3
- 옥수수	984.4	985.4	0.1
- 대두	283.9	304.7	7.3

www.pungnong.co.kr

우리농촌, 농업인의 동반자 엔피코가 함께 합니다!





엔피코 주식회사 **풍 농**

고객센터전화
080-022-4646

- 세계 주요곡물 기말재고량 추이

(단위 : 백만톤)

구 분	'13/'14 (A)	'14/15(전망) 8월(B)	전년(B/A) 대비(%)
곡물전체	501.2	520.5	3.8
- 쌀	110.1	105.4	△4.3
- 밀	183.7	193.0	5.1
- 옥수수	171.1	187.8	9.8
- 대두	67.1	85.6	27.6

□ 국제 곡물 가격동향

○ 쌀

- 중립종 : ('12) US\$ 728/톤 → ('13) 683
→('14.8) 1,093

- 장립종 : ('12) US\$ 567/톤 → ('13) 488
→('14.8) 462

○ 밀 : ('12) US\$ 287/톤 → ('13) 270
→('14.8) 231

○ 옥수수 : ('12) US\$ 272/톤 → ('13) 225
→('14.8) 141

○ 대두 : ('12) US\$ 537/톤 → ('13) 511
→('14.8) 452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년 8월 국제 곡물 시장동향』(9.15) 자료 인용

3 무기질비료 바로 알기

□ 무기질비료 국내 소비 뜰...업계 '자구책 모색' 팔 걷었다 (한국농어민신문, 7.4)

올바른 이해 돕는 홍보 강화

북한지원 건의·공급제도 개선

한중 FTA 대응책 마련 시급

무기질비료업계가 농업지속성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무기질비료 시장은 서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의 경우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시장은 급속한 비료소비 증가추세를 보인다.

세계비료공업협회(IFA) 농업위원회 자료도 비료 소비량은 2018/19년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유는 선진국의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로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 수요 확대와 장기적인 곡물수급 전망 불안정, 농산물 증산 동기강화 등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료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다.

국내 상황은 1970년대 비료 자급률을 달성한 이후 현재 200%를 상회하고, 약 130만~150만 톤의 수출여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질비료 소비감소로 업체 가동률은 80%에서 60%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유기질비료·퇴비의 지원확대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무기질비료 사용이 감소한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무기질비료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료의 3요소인 질소-인산-칼리(N-P-K) 원료인 요소, 인광석, 염화칼륨을 전량 수입하는 현실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 무기질비료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자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무기질비료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홍보가 강조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 및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무기질비료의 북한지원 정부건의, 안정적 비료공급을 위한 공급제도 개선 등도 거론된다.

다음은 경영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방안과 비료사용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부 지원정책이다.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상호보완 역할과 무기질비료 산업의 재인식을 위한 노력도 강조된다.

셋째는 식량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보리, 밀 등 겨울작물과 사료작물 재배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무기질비료 소비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갈수록 증가하는 수입비료에 대처하면서 한·중 FTA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도 현안으로 제기된다.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한·중FTA로 인해 중국의 비료수입이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량에 영향을 줄 텐데 이로 인해 국내 비료 생산시설 붕괴가 초래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현실을 건의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기질비료 국내 소비 뜰...업계 '자구책 모색' 팔 걸었다 (7.4) 한국농어민신문 기사 인용

Loving Earth Loving Human
 지구사랑·사람사랑

국내최초의 민간비료회사
 푸른생각 푸른기업

KG 케미칼
 kgchem.co.kr

건강한 농촌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비료생산 60년,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KG케미칼이 60년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만을 공급하여
 건강한 농촌실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우미급드
 수도작/원예작
 종합복합비료

황새대22
 가리/고토 비료를
 활인 및충비료

황미자급드
 시비량 절감
 경제적비료

양토양양양양
 축조시비로 가능
 관료성비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안교로 660 유스페이스 1 A동 603호 고객센터 무료전화 090-024-4300

KG Inich KG Mobilians KG ETS KG Yellowcap KG ZEROIN KG Passone EDAILY

4 각 회원사 홍보사항 및 신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칼슘유황비료



작물의 칼슘결핍 예방과 토양 개량, 병해충 예방 및 매갈제고 등의 효능이 있으며, 물에 녹는 정도가 130배 높아 작물이 쉽게 흡수, 시비 효과가 높음

□ 동부팜한농(주), 성장엔(N)



효과가 빠른 질산태 질소와 꾸준한 효과의 암모니아태 질소를 함유하여 양분을 균형있게 공급하며, 저온기에 특히 효과가 빠르며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경감되어 노지 및 시설 원예작물 모두에 효과가 우수한 원예용 비료

□ (주)조비, 더존



작물 체내흡수와 이동, 효과발현이 빠른 치요다와 2중복비의 결합, 1차 치요다효과(초기생육), 2차 복비효과(중기생육) 발생하여 양분이 균형적으로 흡수되어 생육, 수량, 품질 향상에 효과적임.

□ KG케미칼(주), 흙살로



‘부식산+ 부식질+ 미생물+ 미생물활성제+ 미량원소’가 최적의 조합으로 제조된 종합토양개량제, 유용미생물의 증가 등으로 뿌리활력과 양분 이용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 (주)풍농, 썰파원에



유황을 다량함유, 광합성을 향상시켜 작물생육증대와 황백화 현상, 감자의 더덩이병, 양파 저온저장시 부패증, 배추 무름병 등 생리병예방에 효과적임

□ (주)협화, 한번에 OK



웃거름이 필요없고, 측조 시비 가능, 용출기간이 다른 4가지 요소로 벼 생육주기에 맞게 양분을 공급, 비료 성분의 유실이 적고 흡수비율이 높아 토양 및 수질오염 감소

5 협회 활동사항 소개

□ 한국농어민신문사에 무기질비료 인식전환을 위한 기획기사 및 광고 게재(7.4)

○ 게재일 : '14. 7. 4(금)

- **신문사** : 한국농어민신문사
- **내용** : 무기질비료에 대해 국민·농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무기질비료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한 홍보 강화, 북한 비료지원 건의, 비료 공급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룬 기획기사와 함께 협회 광고포스터를 게재
- **기획기사명** : 무기질비료 국내 소비 똑...업계 '자구책 모색' 팔 걷었다.(7.4)
- **한국비료협회 광고 포스터**



- **비료포장재 분담금 단가 및 의무율 관련 담당자 회의 개최(7.18)**
- **일시** : '14. 7. 18(금), 15:00~16:30

- **장소** : 비료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각 회원사 비료포장재 담당자
- **내용** :
 - 2015년도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과 분담금 단가조정 건 검토
 - 환경부의 재활용의무율(60.3%)를 낮출수 있는 방안 등 검토

□ 2014년도 「비료연감」 발간(9.5) 및 정부, 관련 기관 등 무료 배부처에 발송(9.15)



- **발간일** : '14. 9. 5(금)
- **가격** : 50,000원
- **내용** : 우리나라 비료산업 개황 및 각종 비료에 대한 해설, 비료관련 통계자료, 정보 제공

- **구매방법**
 - 협회 홈페이지 구독란 (www.fert-kfia.or.kr)
 - 전화 (02-552-2811), 방문(협회 사무실)
- **회원사, 정부, 관련 기관 등 무료배부처에 발송(9.15)**

□ 사장단 간담회 개최(9.16)

- **일시** : '14. 9. 16(화) 11:40~13: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24 사조빌딩
- **참석자** : 협회 등재된 이사 및 감사

- 내용
 - 무기질비료의 날 지정 및 행사 계획(안)
 - 무기질비료 공급제도 개선방안 추진 계획
 - 한국토양비료학회와 세미나 공동개최 계획(안)
 - 비료포장재 재활용분담금 관련 추진상황
 - 비료산업 60년사 발간 추진상황
 - 비료연감 발간
 - 무기질비료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기사 연재 및 광고 포스터 제작
 - 무기질비료 발전협의회 개최

□ 제6차 기술위원회“ 개최(9.22)

- 일시 : '14. 9. 22(월) 15:00~17:00
- 장소 : 비료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각사 기술위원
- 내용
 - 유행의 “비료공정규격 변경” 논의결과 및 검토사항
 -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에 대한 논의
 - 향후 기술위원회 발전방향

□ 추계토비학회 중 “무기질비료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예정(10.24)

- 일정 : '14. 10. 24(금) 09:00~12:00
- 장소 : 한국농업연수원(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13번지)

- 주최 : 한국비료협회와 한국토양비료학회 공동
- 주관 : 한국비료협회
- 발표내용
 - 무기질비료 신비종 개발 및 수요 확대 방향
 - 농산물 생산과 무기질비료 소비량과의 관계
 - 통일 대비를 위한 무기질비료산업 운영방안
- 좌장 및 종합토론자
 - 좌장 : 현해남 교수
 - 종합토론자 : 정부, 학계, 국회보좌관, 농협, 비료업계, 소비자·농민단체 등 11명



6 경제 지표

□ 경제 관련 지표

○ 국내총생산

- ('12) 2.3%→('13) 3.0→('14 2/4분기) 3.6

※ 한국은행 『201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7.24) 보도자료 인용

○ 소비자 물가지수

- 총지수(전월비)

· ('14.5) 0.2%→('14.6) △0.1→('14.7) 0.1

- 생활물가지수(전월비)

· ('14.5) 변동없음 →('14.6) △0.2→('14.7) 변동
없음

※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 인용

○ 환율정보 [달러기준 월/일 평균]

- ('14.7) 1,021원/\$→ ('14.8) 1,025→
(('14.9.24) 1,040

※ 외환은행 『고시환율』 자료 인용

□ 원자재 관련 지표

○ 국제 원자재 가격동향

- 요소(중동)

· ('13.12) 349\$/톤→('14.9) 355

- 암모니아(US Gulf)

· ('13.12) 383\$/톤→('14.9) 575

- 염화칼륨(벵쿠버)

· ('13.12) 310\$/톤→('14.9) 270

※ 『Agrus FMB Price Guide』 자료 인용

○ 원자재 통관실적

- 요소 : ('13.12) 328\$/톤→('14.8) 291

- 암모니아 : ('13.12) 521\$/톤→('14.8) 548

- 염화칼륨 : ('13.12) 434\$/톤→('14.8) 390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자료 인용

7 정부 및 각 회원사 동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및 인사이동

○ 비료산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R&D) 방안 토론회 개최(7.30)



- 일시 : '14. 7. 30(수) 15:00~17:00
-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본관 지하)
-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협중앙회, 한국비료협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석회석가공협동조합, 규산실(협화) 등 9개 기관
- 세부 토론 내용
 - 산업발전방안 : 무기질비료 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비료수출 현황과 애로사항, 비료 공급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개발(R&D) 방안 : 토양개량제 투입량 산정 방안, 비료산업 발전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 **농촌진흥청 청사이전 관련 현판식 및 계양식(8.4)**

- 일시 : '14. 8. 4(월)
-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본청 정문
- 내용 : 현판식과 농촌진흥청기 계양식을 갖고 새로운 농업 100년 대계를 위한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의 개막을 알림. 농진청 본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입주하는 8월 말까지 1단계 이전을 마치면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

○ **농약비료 혼합제 상용화 방안 검토회의 개최(9.24)**

- 일시 : '14. 9. 24(수) 14:00~16:00
- 장소 : 농식품부 회의실(330호)
- 참석자 :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농진청, 농과원, 식약처, 농협, 비료협회, 작물보호협회
- 내용 :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 사항, 실효성 및 안전성 여부(외국사례 포함)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인사이동(9.5)**

-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장 기술서기관 전한영(재해보험팀장) 발령(9.5)

□ **동부팜한농(주) 행사 및 농자재사업총괄 CEO 체제 도입**

○ **동부팜한농 비료 전시포(시범포장) 평가회 개최(8.8)**

- 동부팜한농 및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은 경기 연천군에서 지역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팜한농 비료 전시포(시범포장) 평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평가회에서 수집한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농자재사업총괄 CEO 체제 도입(8.28)**

- 농자재사업총괄 CEO 체제를 도입, 최석원 관리총괄 CEO와 박광호 영업총괄 CEO로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함

8 기타동향

□ 한국토양비료학회 “2014년 제3차 이사회” 개최(8.22)

- 일시 : '14. 8. 22(금) 16:00
- 주최/주관 : 한국토양비료학회
- 장소 :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2층 회의실
- 내용 : 201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계획 협의, 기타안건 토의 등

□ “제14차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8.18~21)

- 일시 : '14. 8. 18(월) ~ 8. 21(목), 3박 4일
- 주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주관: 한농연제주도연합회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참석자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내외·빈과 한농연 회원가족 등 약 2만여명
- 내용 : 정·관계 인사 및 농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국내 농업 비전 제시, 후계농업인으로서 동질성 확인 및 한농연 정체성 재정립, 국내 대표 농민단체로서 비전 제시 등 향후 한농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음

□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과 분담금 단가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8.26)

- 일시 : '14. 8. 26(화) 14:00~15:00

- 장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
- 참석자 : 각 회원사 비료포장재 담당자 등
- 내용 : 2015년도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과 분담금 단가조정 등 검토

□ “2014년도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예정(10.23~24)

- 일시 : '14. 10. 23(목) ~ 10. 24(금), 1박 2일
- 장소 : 한국농업연수원(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13번지)
- 행사내용
 - 학회 발전방안 대 토론회
 - 추계 학술발표회

((주)협화
흙은 건강하게 농사는 풍요롭게 -

농업인과 함께한 50년 협화비료
흙을 생각하는 비료

협화는 국내 최초로 규산질 비료를 개발하여 천만톤 이상 공급하고 있으며
맞춤형비료, 화학비료, 원예용비료, 유기질비료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종합비료 회사입니다.

협화비료

- ▶ 땅심8복비 (18-7-7)
- ▶ 땅심평가 (21-7-11)
- ▶ 유기왕골드 (순환친환경비료)
- ▶ 땅심유박 (순환친환경비료)

((주)협화
본행공사 :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문안로5길 37 전화번호 : 02. 737. 2751 팩스번호 : 02. 732. 3625
포항공장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253번길 63 전화번호 : 054. 272. 5072 팩스번호 : 054. 272. 0645
홈페이지 : <http://www.khfc.co.kr> 고객센터 무료전화 : 080.722.8800